

시진핑의 '반독점' 한마디에... 中 빅테크기업 줄줄이 '항복'

시진핑 "반독점 경쟁감독 강화해야" 기업들 정부 눈치보며 몸 바짝 낮춰 텐센트 '공동부유' 동참... 9조 기부 샤오미, 정부정책 적극 동참 광고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독점'을 강조하자 빅테크(대형 IT기업) 기업들의 자발적인 꼬리 내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 주석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빅테크기업들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독점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운털 박힌 中 배달플랫폼 '메이투안' 최근 중국 정부의 가장 집중적인 규제 대상으로 전락한 건 배달 플랫폼 기업 '메이투안'이다. 메이투안은 지난 2018년 모바일크를 27억달러(약 3조 1300억원)에 인수했는데, 당시 인수 내역을 중국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1일 중국의 IT 전문매체 'IT즈자(IT之家)'에 따르면 메이투안이 최근 발표한 재무 보고서에는 지난 4월부터 중국 정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메이투안 측은 "회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중국 정부의 기업 감독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해당 조사의 상황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중국 정부에 항복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메이투안이 이날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33억6000만위안(약 60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 규모가 82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메이투안 측은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적자 배경으로 꼽았지만, 작년 부터 계속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많다.

◆규제법안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中 IT기업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청소년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1 중국 국제서비스박람회 글로벌 서비스 무역정상회의에서 동영상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3번째 증권거래소를 설립해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 경제의 기업인에 대한 공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스1

했다. 공휴일이 있는 주를 제외하면 일주일간 3시간의 게임밖에 하지 못하는, 게임사들에게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 중 반대의사를 표명한 곳은 한곳

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며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다.

샤오미의 게임 자회사 샤오미 게임즈는 지난 31일 "정부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로 협조하겠다"며, "미성년자의 성인 계정 도용을 단호히 방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 게임전문사 바이아우자팅후동도 "(게임규제 정책을 따르기 위해) 회사의 중독 방지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에 기부의사를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다. 시 주석이 지난 17일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자 빅테크 기업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중국의 대표 빅테크 텐센트는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500억위안(약 9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기업 핀둬둬도 농업과학기술 조성 기금으로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빅테크 조이고 中 企 살리고 베이징에 증권거래소 신설

상하이·선전 이어 본토 세 번째 혁신 中 企 위주 상장, 전폭 지원 中 자본시장 장기계획 일환 분석

중국이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새로 만든다. 본토에서는 상하이와 선전에 이은 세 번째 증권거래소다. 베이징거래소는 중소 혁신기업에 집중해 기존 증권거래소와 차별화한다.

깜짝 발표라고 하지만 사실 제3거래소는 중국이 외쳐온 '공동번영'이란 큰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독점적인 빅테크와 같이 '공동번영'이라는 목표와 어긋날 경우 규제하겠지만 반대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 얘기다.

이와 함께 자국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 등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중국 입장에서 자본시장 강화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였다.

5일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축사를 통해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 계획을 내놨다.

시 주석은 이날 "중소기업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베이징거래소 설립으로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요 진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거래소의 기반은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어온 신삼판(新三板)이다. 신삼판은 장의 벤처기업 전용 거래소로 우리나라로 치면 코넥스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삼판에서 거래된 지 1년이 지난 혁신 기업이 베이징거래소의 상장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FT 전문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의 자본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중국의 자본시장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다음 날 바로 성명을 통해 상세한 계획을 발표했다. 시 주석이 직접 나선 만큼 빠르면 연내 거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증감회는 "베이징거래소 설립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대 조치"라며 "국가 혁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대형기업 위주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베이징거래소는 혁신 중소기업 위주로 상장하면서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감회는 "베이징거래소는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거래소로의 이전 상장 등 상호 연계 기능도 잘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스마트캠퍼스 #메타버스 #시선배 #블록체인 #ESG #사람중심 #학생성공 #뉴노멀 #탄소중립 #모바일신분증

#START SMART

#고려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21. 9. 10 (금) 10시 ~ 9. 13 (월) 17시
• 세종캠퍼스 : 2021. 9. 10 (금) 10시 ~ 9. 14 (화) 18시
• 접수처 : oku.korea.ac.kr